

‘10라운드의 기적’ 성영탁, KIA 뒷문 책임진다



정해영 공백 속 2SV·3HD·ERA 0.93로 맹활약 이범호 감독 “가장 안정적인 투수…마무리 경쟁”

KIA타이거즈 3년차 우완 성영탁이 팀의 새로운 마무리로 떠오르며 불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성영탁은 2024년 신인드래프트 10라운드 96순위로 KIA 유니폼을 입은 선수다. 입단 첫해에는 1군 무대를 밟지 못했지만, 2군에서 23경기 40이닝 2승 2패 2홀드 평균자책점 4.05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잠재력은 이듬해 폭발했다. 2025시즌 1군에 올라온 성영탁은 45경기 52.1이닝 3승 2패 7홀드 평균자책점 1.55의 성적을 기록하며 ‘10라운드의 기적’을 써냈다. 데뷔 후 구단 최다 연속 무실점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인상적인 활약으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전상현 선수(왼쪽)와 정해영 선수. 사진제공=KIA타이거즈

올 시즌 역시 기세가 이어지고 있다. 성영탁은 21일 경기 전 기준 9경기에서 9.2이닝 1실점, 평균자책점 0.93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한화전에서 1.2이닝을 책임지며 데뷔 첫 세이브를 수확했고, 이후 키움전에서 연이어 세이브를 올리며 2세이브(SV) 3홀드(HD)를 기록 중이다.

사실 정규리그 시작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시범경기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6.75로 흔들렸다. 그러나 시즌에 들어서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투구로 팀의 신뢰를 얻고 있다.

성영탁의 활약은 KIA에 ‘기묘의 대비’와도 같다. 기존 필승조였던 전상현이 최근 부상으로 이탈했고, 홍천희 역시 어깨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졌다.

여기에 정해영마저 부진에 허덕였다. 그는 올 시즌 4경기에서 총 2.2이닝을 던지는 데 그쳤고, 평균자책점은 16.88까지 치솟았다. 지난 10일 한화전에서는 0.1이닝 2실점으로 극도로 부진했다.

구단은 그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 휴식 차원에서 지난 11일 전상현과 같이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팀의 마무리가 2군행 통보를 받은 상황.

이 공백을 성영탁이 빠르게 메웠다. 11일 한화전부터 마무리로 등판해 4경기에서 5이닝 1실점으로 뒷문을 지켰다. 특히 9회 마운드에서의 중압감 속에서도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며 마무리 투수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물론 아쉬운 모습도 있었다. 지난 18일 잠실 두산전, 시즌 첫 불펜 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했다. 8회 2사 후 등판해 동점 적시타를 맞았다. 그럼에도 9

회 다시 마운드에 올라 삼자범퇴로 자기 역할을 다했다.

이범호 감독 역시 성영탁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 감독은 “지금 팀 상황에서는 성영탁이 가장 안정적이고 확률이 높은 투수다. 당분간 마무리 자리는 성영탁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해영이가 퓨처스에 내려가 있지만, 올라오더라도 영탁이와 전상현 등 누가 제일 구위적으로 적합한 상황인지 체크할 거다. 프로그 때문에 어떤 자리던 경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마무리 자리의 무한 경쟁을 예고했다.

정해영의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감독은 정해영에 대해 “구위는 좋다. 다만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카하시 켄 2군 코치와 정해영이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을 짰고, 편한 상황에서 던지는 방향으로 정했다”면서 “선발과 5~6회 중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등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퓨처스에서 심리적인 상태가 나아졌다 싶으면 바로 풀업할 예정이다”면서 “오랜 기간 부상 없이 팀을 지켜준 마무리 투수인 만큼, 팀 차원에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좋은 마무리 투수로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1군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정해영이 돌아오더라도, 곧바로 마무리 보직을 차지할지는 미지수다. 당분간 성영탁이 9회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불펜 위기 상황에서 뒷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성영탁. 10라운드 지명이라는 한계를 딛고 KIA의 새로운 ‘마무리 카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감동의 무대 ‘제34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팡파르

24일까지 사흘간 구례 일원서 열려
22개 시군 5000여명 21개 종목 열전
야외 개회식·축하공연 등 체육 축제

전남 장애인 스포츠 축제인 ‘제34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구례군 일원에서 열린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자연의 땅 구례에서 펼쳐라 희망의 꿈’을 구호로 22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관람객 등 5000여명이 참가하는 전남 최대 규모의 장애인 체육행사다.

대회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선수들이 출전해 육상, 수영, 보치아, 배드민턴 등 21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구례군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가 열린 데 이어 이번 장애인체육대회까지 연이어 개최되며, 전남을 대표하는 체육 축제가 잇따라 펼쳐지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개회식은 22일 오후 4시 구례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대회기 게양, 개회사, 선수·심판 대표 선서,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

된다. 야외 행사로 마련돼 현장감 있는 체육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개회식 이후에는 가수 진성, 김준수, 유수현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이어져 대회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대회 기간 동안에는 지리산과 섬진강 등 구례의 풍부한 자연 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체육과 관광이 어우러진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폐회식은 24일 오후 2시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종합체점 방식에 따라 시·군별 경기 성적을 합산해 종합 순위를 가리며, 종합시상을 비롯해 종합별 시상, 최우수선수상, 모범선수단상, 공적경기상 등이 수여된다.

곽춘섭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전남 단독 장애인체육대회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선수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며 최고의 경기력을 펼치는 대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과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경기장 시설 점검과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지난해 장성에서 열린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모습. 사진제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

광주FC-신성자동차 협력...‘AMG GLC 43’ 지원

클럽하우스서 전달식...운영 안정·마케팅 협력 강화
신성자동차 “승리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 되길”

프로축구 광주FC의 후원사이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사 신성자동차가 이장규 감독에 차량을 지원하며 힘을 보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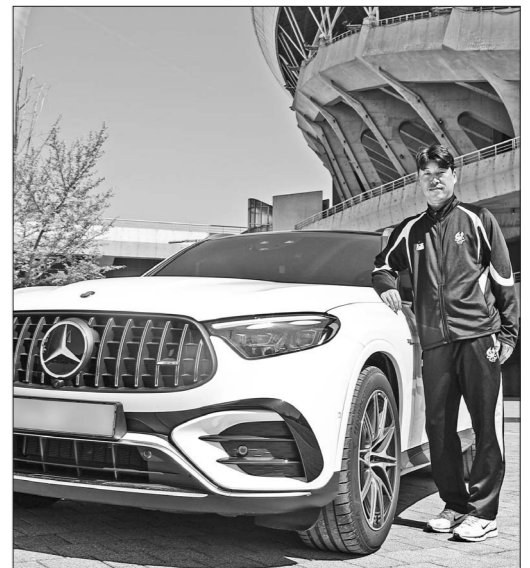
광주는 최근 구단 클럽하우스에서 이장규 감독과 신성자동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Mercedes-AMG GLC 43 4MATIC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된 AMG GLC 43 4MATIC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베스트셀링 SUV GLC를 기반으로 AMG의 기술력이 결합된 고성능 모델이다. 2.0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원 맨 원 엔진(One Man, One Engine)’ 철학이 적용된 전동식 터보

차저를 탑재해 최고출력 421마력, 최대토크 51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광주는 이번 차량 지원을 통해 감독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팀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성자동차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마케팅 및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성자동차 관계자는 “K리그 현장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이장규 감독에게 메르세데스-벤츠의 고성능 모델인 ‘AMG GLC 43 4MATIC’을 제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강력한 퍼포먼스와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갖춘 이번 차량이 감독의 승리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축구 광주FC의 후원사이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사 신성자동차가 이장규 감독에 차량을 지원하며 힘을 보탤다. 사진제공=광주FC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행복나눔교실 볼링 수업 모습.



행복나눔교실 축구 수업 모습.



행복나눔교실 골프 수업 모습.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스포츠 복지 실현...시체육회 ‘행복나눔교실’ 운영

9개 종목·14개소 260여명 참여...다문화·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집중’

광주시체육회가 다문화 및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2026 행복나눔교실’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 및 소외계층 가정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 복지 실현, 사회·문화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시작된 ‘행복나눔교실’은 올해 광주시와 공동 재원을 마련해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개 자치구 가족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등 교육·복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각 기관을 통해 선발된 학생 260여명은 14개 운영 장소에서 매주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종목별 전문 강습을 받게 된다.

운영 종목도 다양하다. 골프(GPC생활체육), 농

구(대한유소년스포츠교육원·양산초), 방송댄스(동구청소년수련관·송정다누리체육관), 볼링(웰컴볼링센터·K1볼링장·광주탑볼링장), 빙상(영주실내빙상장), 스쿼시(광주체육회관), 수영(조지치의수영교실·영주수영장), 탁구(동림다목적체육관), 축구(월곡초·소태마을stad) 등 9개 종목이 운영된다.

전담수업 광주시체육회장은 “생활체육의 문턱을 낮추고 다문화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